

## 성공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에 관해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이라는 책 아시지요?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책인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1500 만부가 팔렸고, 지금도 한달에 5만-10만부가 팔린다고 합니다. 많이 들 읽어보셨겠지요? 너무 유명하고 인기있는 책은 웬지 김이 새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7 가지 습관이 너무 널리 알려져서 읽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이책이 나온지 15 년만에 스티븐 코비가 한가지 습관을 더 추가해 '8 번째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이 나온지 10 주년 되는 해에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성공한 사람답게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했는지 생각보다 꽤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15 년만에 드디어 추가된 성공의 습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목소리를 찾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라.”

(Find your voice, and inspire others to find theirs.)

차이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실현하고 무엇인가에 기여하는 삶을 찾으라는 뜻이고, 이 단계는 재능과 열정, 양심이 모두 결합돼야 하는 아주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신이 누구 인지를 알아 인생의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뜻이 겠지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복습해야 하니까 7 가지 습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주도적이 되어라. (책임있게, 능동적으로)

\*목표를 먼저 세우고 행동하라. (당신의 인생을 포함해 계획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미지를 발전시켜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장래의 더 큰 기쁨을 위해 오늘의 기쁨을 미룰 수 있도록 훈련하라.)

\*원-원전략을 추구하라.

\*남의 말을 먼저 듣고 이해한 후 그 다음에 남을 이해시켜라. (말을 적게 하고 더 많이 들어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심신을 단련하라. (육체적·정신적·감정적·영적인 면까지도.)

그런데 이 중에서 코비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습관으로 꼽은 것은 바로 “남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말은 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항상 내 입장 먼저 설

명하기 바쁘니까 남의 말을 다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웬만한 내공 가지고는 안되는 일이지요.

스티븐 코비와 같이 생활을 해보고 그에 관한 기사를 쓴 어느 기자는 책에는 실리지 않은 몇가지 성공의 습관이 더 있다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선 올해 75 세인 코비는 끝없는 에너지와 스테미너의 소유자랍니다. 코비는 12 일 동안 유럽 7 개국에서 강연하는 강행군을 하고 집에 밤 11 시에 돌아와서도 90 분 동안 운동을 한답니다. 게다가 늘 유머감각을 잃지 않구요. 매달 첫 일요일에는 단식을 한답니다.

코비는 유타주에 사는 몰몬교도입니다. 자녀가 9 명이나 되구요. 손주들은 올해 크리스마스에 태어날 손주까지 포함해 43 명이랍니다. 코비는 자신의 취미생활이 '가족'이라고 한다는군요. 코비의 책이 몰몬교의 가르침을 경영지침으로 재포장한데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코비는 종교나 정치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비는 유타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 를 했고 브리검 영 대학에서 조직행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이 대학에서 24 년을 가르쳤습니다. 이 책을 쓴 것은 50 세 때로 그 후 꽤 많은 돈을 벌기는 했다는데, 프랭클린코비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고전하기도 해서 지금은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니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책이 20 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책으로 꼽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겠지요. 아마 코비가 15 년만에 새로 생각해낸 8 번째 습관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것일 수도 있구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지만 별 것도 아닌 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엄청 힘이 나는것 같습니다. 욕먹고 야단맞으면 “나는 안되나 봐. 여기서 포기해버릴까봐”하는 생각에 쉽게 빠지는 반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 칭찬을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불끈 솟아오르니까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무책임하고 거친 말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런 글을 쓰고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냈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비판도 예의를 갖춰서 하면 훨씬 더 잘 전달될텐데 왜 이렇게 미운 말만 골라서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인생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생각, 희망을 불어넣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한 좋은 말들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환하게 변화시켜서 훗날 그 사람이 “그때 천사를 만났다”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천사가 되는 거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여전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 成功する人々の7種の習慣について

スチーブンコビーの‘成功する人々の7種の習慣’という本を知っていますか？とても有名でこれ以上説明が必要ない本なのに、今までアメリカで1500万部が売れたし、今もひと月に5万-10万部が売れると言います。たくさん聞いて見たのですか？とても有名で人気がある本はなんだか興味がなく忌避する傾向があったりして、また一方では7種の習慣があまり広く知られて読む必要もないと思うかも知れないですね。

この本が出てから15年ぶりにスチーブンコビーが一つ習慣を追加して‘8番目の習慣’という題目の本を出版したと言います。元々は‘成功する人々の7種の習慣’が出てから10周年になる日に一つを追加しようと思ったがお坊さんが自分の髪を切る事ができないように成功した人らしく効率的に働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か思ったよりかなり時間がかかったようです。15年ぶりにいよいよ追加された成功の習慣は一体何でしょうか。

“君の声を捜しなさい。  
そして他人も自分の声を捜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靈感を与えろ。”  
(Find your voice, and inspire others to find theirs.)

差を作りたい熱望を実現して何にかに寄与する生を捜しなさいという意味で、この段階は才能と情熱、良心が皆結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ても難しい段階です。自分が誰なのかを分かって人生の意味を捜して他人もそのように住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手伝ってあげなさいという意味でしょう？

たくさん聞いて見たが、私も復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7種の習慣を簡単に整理します。

- \*主導的になりなさい。(責任ありげに、能動的に)
- \*目標を先に立てて行動しなさい。(あなたの人生を含めて計画がどのように展開されるかイメージを発展させなさい。)
- \*重要なことから先にしなさい。(将来のもっと大きい喜びのために今日の喜びを延ばすように訓練しなさい。)
- \*ウィン-ウィン戦略を追い求めなさい。
- \*他人の言葉を先に聞いて理解した後、その次に人を理解させなさい。(言葉を少なくしてもっとたくさん聞きなさい。)
- \*シナジーを活用しなさい。(全体は部分の合より大きい。)
- \*心身を鍛えなさい。(肉体的・精神的・感情的・霊的な面までも。)

ところで、この中でコビーが一番実践しにくい習慣として挙げたのはまさに“他人の言葉をもっとたくさん聞いて言葉を減らすこと”と言います。私も共感します。いつも私の立

場を先に説明することで忙しいから他人の言葉をすべて聞いて十分に理解してから私の話をするとすることはとても難しいことでしょう。

スチーブンコビーと一緒に生活をして見て彼に関する記事を書いたある記者は本には載せられないいくつかの成功の習慣がもっとあると言いながらこのように伝えます。まず今年75歳のコビーは果てしないエネルギーとスタミナの持ち主です。コビーは12日間ヨーロッパの7ヶ国で講演する強行軍をして家に夜11時に戻って来ても90分間運動をするのですよ。それに常にユーモア感覚を失わないのです。毎月の初日曜日には断食をします。

コビーはユタ州に暮すモルモン教道です。お子さんが9名もなるのです。孫たちは今年のクリスマスに生まれる孫まで含めると43人です。コビーは自分の趣味生活が'家族'と言うのです。コビーの本がモルモン教の教える経営指針に再包装したのに過ぎないという批判もあったが、コビーは宗教や政治に関する内容はどこにも含ませなかったと駁しました。コビーはユタ大学を卒業してハーバードでMBAをしたシブリゴム英大学にて組職行動で博士の学位を受けた後、この大学で24年を教えました。この本を書いたのは50歳の時で、その後はかなり多くのお金を儲けることはしたと言うのに、フランクリンコビーという会社を作ってから苦戦したりして今はそんなにおびたらしい金持ちではないと言いますね。しかし重要なのは彼の本が20世紀に最大の影響力を発揮した本で数えられるほどに幾多の人々の共感を得たというのですね。多分コビーが15年ぶりに新たに思い出した8番目の習慣も他の人々に靈感を吹き入れることができた自分の体験で染み出たことかも知れないのです。

‘褒め言葉は鯨も踊るようにする’と言う本もあるが何でもない事に褒めてくれて励ましてくれて心配してくれる言葉を聞けばすごく力が出るようです。悪口を言われて叱られれば“私は駄目なのか？ここで諦め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思いに落ち易い一方、褒め言葉を聞けば気持ちがよくなるからまた褒め言葉を聞きたくてもっと熱心にしたい考えがむっとほとぼしるから。

インターネットに歩き回る無責任な荒い言葉を見る度に‘この人は他人気持ちを傷めるこんな文を書いてからも今日の一日を幸せに過ごせるのだろうか’という切ない気がします。批判も礼儀を揃えてすればずっとよく伝わるはずだがどうしてこんなに悪い言葉だけ選んで使っただろうかと言う気がするのです。

他人に靈感を与えて人生を変えるほどに大きい影響を及ぼすことはあまりたやすい事ではないかも知れないが、肯定的な考え、希望を吹き入れる事は思ったより簡単かも知れないです。いいえ、もしかしたら今日私たちがした良い一言がある人の人生を明るく変化させて後日その人が“あの時、天使に会った”と言うかも知れないですね。天使になるのは思ったより簡単だが実践することは相変わらず難しいようです。